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김경휘 **, 황정임 ***, 류연규 ****

초 록

본 연구는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를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보면, 빈곤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자격증이 있을수록, 기혼일수록, 종업원수가 많을수록, 음식업을 선택했을 경우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보면, 빈곤여성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을수록, 이혼/별거/사별한 여성 자영업자일수록 자영창업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상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기대심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통해 빈곤 탈출에 기여하고 소득향상 뿐 아니라 독립성을 증진시킨다는 평가와 자영창업의 소득향상 효과가 다른 전략들에 비해 월등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역량강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빈곤여성들은 자영창업을 통해 소득증대 효과를 얻고 있으며,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갖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영창업이 빈곤여성의 탈빈곤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득향상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적 접근들이 함께 제공되어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의지와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여성빈곤, 자영창업, 빈곤여성

* 본 글은 한국여성개발원(2006)의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한 자활지원방안 연구'의 일부를 토대로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 송실사회보장연구센터 연구원, ohomimi@hanmail.net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m1003@kwdi.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yunkyu@kwdi.re.kr

I. 서론

자영창업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빈곤퇴치 전략 중 하나로, 이미 많은 저개발국가에서 빈곤탈피 효과를 검증받은 바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복지국가에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출현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정책이 강조되는 최근에서야 저소득층의 자영창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서구 사례에서 보면 빈곤층에 대한 자영창업정책의 주요 수혜자가 빈곤여성이고, 빈곤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한 방법으로 소규모 자영창업의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다(Kantor, 2001). 자영창업이 임금노동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빈곤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여성빈곤을 퇴치하며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기에, 빈곤하기에 경험하게 되는 장애요인도 많아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여성 자영창업의 제약조건들은 주로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의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업종, 자신들의 제한적인 노동시장 경력이나 경험 등을 고려해서 업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소위 ‘pink-collar’로 불리는 소규모 노동집약적 저수익 업종에 집중되고, 창업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사업경영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취약하며, 창업을 위한 자본금 확보도 어렵다는 것이다(Loscocco & Robinson, 1991; Sandberg, 2003).

그동안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점포 임대지원 등이 진행되어 왔으나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자활공동체를 통해 창업에 이르는 빈곤여성들이 생기고 마이크로크레딧을 표방하며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연대은행 등이 생기면서 저소득층 여성의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일을 통한 빈곤퇴치 전략의 일환으로 자영창업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효과는 어떠한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는 빈곤여성들이 자영창업을 통해 얻는 효과가 어떠한지, 그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여성 자영창업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일반자영

업자 중 여성 자영업자 혹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자영업의 특성, 자영업 선택의 이유, 자영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고 있고(김영옥 외, 1998; 성지미, 2002; 문유경 외, 2002; 강세영 외, 2005), 저소득층 여성의 창업 관련 연구들은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여성가장 혹은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정책의 수혜자들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나 정책 만족도 조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원종욱 외, 1999; 근로복지공단, 2005;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6).

외국 문헌에 따르면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통해 빈곤 탈출에 기여하고 소득 향상 뿐 아니라 독립성을 증진시킨다는 평가와 자영창업의 소득향상 효과가 다른 전략들에 비해 월등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역량 강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Jiggins, 1989; McKee, 1989; Downing, 1990; Sanders, 2004; Cloud & Elavia, 1991; Okine, 1999; Wakoko, 2004; Grasmuck & Espinal, 2000; Izugbara,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들의 자영창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빈곤여성들이 자영창업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를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나눠서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자영창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자영창업의 경제적 효과라 함은 자영창업을 통한 소득 증대와 관련된 것이고 비경제적 효과라 함은 직업 및 경영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의 향상, 자신감의 증대와 같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과 의지 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창업을 통한 월소득, 매출액, 순수익 등 소득향상과 관련된 경제적 효과는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되나, 비경제적 효과는 여성과 관련해서 특히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빈곤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굴레 속에 있는 빈곤여성들에게 자영창업이 역량강화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대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창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Mayoux, 1995).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8차년도 노동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2차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빈곤여성의 자영창업과 관련된 충분하고 정확하게 변수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창업의 효과를 경제적, 비경제적 측면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영창업이 빈곤여성들에게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전략으로서 유용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데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영창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빈곤여성에 대한 자영창업의 효과 및 효과에 대한 영향요인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실제 자영창업을 하고 있는 빈곤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영창업 효과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영창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자영창업을 통해 여성의 복지가 증진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자영창업이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자영창업이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은 그라민뱅크와 같은 저개발국가의 빈곤여성에게 대한 소액자금대출이 여성빈곤 퇴치에 효과적임을 강조한다(Mayoux, 1995: 2). 또한 자영창업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권한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복지가 증진된다고 본다. 자영창업이 여성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증가시키며, 이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Kantor, 2001: 3).

이처럼 여성 자영창업이 빈곤여성 소득 증대,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한 확대를 가능케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성 자영창업의 한계도 존재한다. 먼저,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창업할 때 자본금 부족을 경험할 수 있다. 여성은 사업·취업 경력이 부족하여 자본금을 축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기 창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창업자금을 대출하려고 해도, 금융기관 직원의 성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성의 자금 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Sandberg, 2003: 409). 금융기관들은 소규모 자영창업자들을 꺼려하는데 남성보다 여성에 대해 더욱 그러하며, 특히 이혼·사별·미혼 여성이나 독신여성의 경우 금융기관 사업자금 용자가 어렵다(Loscooco & Robinson, 1991). 실제 소규모 자영창업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의 초기 자본금에서 금융

기관 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훨씬 낮다(U.S. Department of Commerce, 1980; Loscocco & Robinson, 1991에서 재인용). 이러한 초기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창업 업종이 노동집약적인 소규모 업종에 제한되어 수익을 충분히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로 여성들은, 사업 관련 네트워크(인맥)가 부족하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식에 젠더 차이가 존재하고, 이 차이는 이후 사업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Olm et al., 1988; Aldrich, 1989; Rosa & Hamilton, 1994). 예를 들면 재정을 조달하고 재정적 후원자들과 인맥을 형성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한데(Carter & Rosa, 1998; Sandberg, 2003: 409에서 재인용), Aldrich(1989)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네트워크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수준이 낮으면 사업 경영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지고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영창업은 네트워크 수준이 낮은 여성에게 불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여성은 시간 사용에 있어서 자영업과 가족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는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Loscocco & Robinson, 1991). 이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 부담이나 마찬가지로, 이 때문에 자영창업하는 여성들이 전일제 노동보다는 시간제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사업에 투여하는 시간이 적어지면 자연히 사업 수익은 낮아지게 된다. 사업 수익이 높은 여성들은 일-가족 갈등을 완화시키는 나름의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사업 수익이 낮은 여성들은 일-가족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Shelton, 2006).

마지막으로, 여성이 선택하는 창업업종 자체를 여성 자영창업의 한계로 들 수 있다. Ehlers & Main(1998)에 의하면, 여성들은 소규모 노동집약적 저수익 업종을 선택한다. 소위 'pink-collar' 업종으로 주로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의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써, 보육, (출장)요리, 청소, 애완견서비스, 봉제, 플로리스트, 미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사업들은 주로 집에서 운영할 수 있고, 기존의 성역할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를 띤다. 이러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은 노동시장 경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다양하지 않아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윤을 많이 창출하거나 경

쟁적인 업종을 선택하기 보다는, 주변적이고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노동집약적 업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Otero(1989)에 의하면, 여성 자영업자들 중 높은 수익을 내는 업종은 건설, 리무진서비스, 경비업, 화물운송, 자동차유리교체, 보석감정, 광고 등으로, 여성이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지금까지 여성이 진출하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Ehlers & Main, 1998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에서 나타난 여성 자영창업의 장점과 한계가 과연 우리나라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빈곤여성에 대한 자영창업의 효과

1) 경제적 측면(효과) : 소득향상 효과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한 소득향상 효과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기구 원조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초기 개발 프로그램들은 남성에게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정부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다가 빈곤 감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 자산과 노동을 통제당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었다. 개발도상국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그라민뱅크의 경우 지원받은 여성들의 소득이 향상되었고 그로 인해 여성이 속한 가족의 삶이 좀더 윤택해지고, 가정폭력이 감소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Hashemi & Riley, 1996; Todd, 1996). 또한 Raheim & Alter(199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AFDC 수급자에게 창업지원을 실시하는 프로젝트 결과 참여자의 12%가 AFDC 수급을 탈피하였고, 32%의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자활하여 더 이상 급여를 받지 않는 참여자가 22%에 이르렀다. 자영업 창업자들의 평균 창업자금은 5,605달러이며, 이를 통해 1인당 평균 4,867달러의 자산증식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되었다¹⁾(황정임 외, 2006에서 재인용). 1986년부터 시카고 빈곤여성의 창업지원사업(WSEP: Women's Self-Employment Project)의 결과에

1) 경제적 성과 외에 수급자의 자존감 상승,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는 등 심리사회적 성과도 발견되었다.

서도 참여자 80%가 3년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폐쇄가 6개월에서 1년 이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지율 자체가 성공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참여자의 60%가 창업을 통해 순소득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해 빈곤선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빈곤탈피에 성공한 참여자가 2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Evans, 1996; 황정임 외, 2006에서 재인용). 또한 Jiggins(1989)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자영업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남성 자영업자들에 비해 가구 소득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고, McKee(1989)와 Downing(1990)에 의하면 여성 자영업자들은 사업소득을 가구소득과 자녀들의 필요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시킨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사업성장과 상충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빈곤여성 자영창업지원의 소득향상 효과를 반드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Kevane & Wydick, 2001).

이처럼 자영창업이 빈곤여성의 소득향상 효과를 갖고 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Sanders(2004)는 미국의 자영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빈곤여성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저소득 자영업 여성들, 저소득 취업여성들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변화를 집단간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세 집단 모두 빈곤선 소득 이상으로 소득증가는 있었으나 자영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빈곤여성들의 소득 향상 효과가 더 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Langer et al., 1999; Sanders, 2004에서 재인용). 이렇게 빈곤여성 자영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소득향상 효과는 매우 논쟁적이다. 빈곤여성 가구의 소득향상·빈곤탈피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많이 있지만, Sanders(2004)의 연구와 같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많이 있다. 저소득 자영창업이 오히려 현재의 권력 구조를 지속시키며, 특히 여성의 자영창업 업종이 한정되기 때문에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남아 있고, 주류 경제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Ehlers & Main, 1998; Loscocco & Robinson, 1991; Leach & Sitaram, 2002).

2) 비경제적 측면(효과) : 임파워먼트 효과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한 다른 효과는 임파워먼트이다. Kantor(2001)는 여성주의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여성들은 자원 재분배 과정에서

사회적 규범과 권력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낮고 사회적 규범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 자영창업의 성공에는 비경제적인 부분, 특히 역량강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Mayoux(1995: 10)에 의하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자영창업 성과를 살펴볼 경우 단지 경제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다차원적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양적 방법보다는 질적 방법을 사용하고, 비용효과성보다는 빈곤의 광범위한 측면에 대한 영향력 및 역량 강화 이슈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빈곤여성은 소득증대나 프로젝트의 비용효과성을 달성할 가능성이 낮은 대상이지만, 소규모 자영창업에서 주요한 대상으로 강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역량강화 효과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소액 대출과 자영업 집단 활동 지원 부분에서 많이 나타난다. Goetz & Sen Gupta(1996)와 Kabeer(1996)의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와 도미니크 공화국의 SEDAW 사업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집 밖의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라민뱅크의 경우 여성들이 집단 회의에 참여하고, 단기 훈련을 받고, 사회 연줄망을 형성하도록 돕는데, 이러한 활동 자체가 여성의 사회문화적 활동 제약을 완화하고 아내와 딸로서의 삶이 아닌 사회 구성원 역할을 발전시키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Wakoko, 2003: 51-52에서 재인용).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영창업이 여성의 소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득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일정 정도 독립성을 증진시킨다고 한다(Cloud & Elavia, 1991; Okine, 1999; Grasmuck & Espinal, 2000).

이러한 역량강화 효과 역시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은 그들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연장선상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으로 최소한의 생계 수준 소득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크지 않아 여성의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집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일 경우 여성의 역할 부담만 커지고(Wakoko, 2004), 소득증가는 젠더관계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Grasmuck & Espinal, 2000; Izugbara, 2004).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 논쟁적으로 나타나는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의 효과를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자영창업의 효과에 대한 영향요인

여성 자영창업의 성과 혹은 효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소득향상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성과 혹은 효과로 보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몇몇 연구에서 자영창업에 대한 만족도, 자영창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긍정적/부정적) 등과 같은 비경제적 측면을 다루었다.

Losocco(1991)²⁾에 따르면 젠더와 소규모 자영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자 매출액과 수입을 자영창업 성과로 보고, 인적자본, 개인적 특성, 가족상황, 사업특성이 자영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러한 특성들이 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는 개인적인 특성 보다는 구조적 특성(가족상황, 사업특성)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들의 자영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변수는 창업 업종이었으며 아무리 인적자본이 높은 여성이라 해도 남성에 비해 사업적 경험이 취약한 것으로 인해 자영창업의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세영 외(2005)에서도 자영업의 성과를 월평균 순수입으로 보고, 교육수준, 성별, 과거의 자영업 경험, 업종, 근로시간, 종업원수, 재택근무 여부, 부부의 공동경영 여부, 창업자본금 규모, 사업기간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 자영업자들이 남성에 비해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자영창업의 경우 부부 공동창업 보다 종업원 관리, 고객관리, 사업상 교

2) Losocco(1991)에 따르면 젠더와 소규모 자영창업의 성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젠더모델, 구조적 모델, 직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젠더모델(gender model)은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사회화과정, 교육훈련 과정이 다르고 이를 토대로 서로 다른 수준의 인적자본을 갖추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영창업에서의 성과가 달리 나타난다고 본다. 여성들이 자영창업에 필요한 경영이나 기술적인 능력, 위험감수성과 자기통제력 등과 같이 자영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갖추어진 인적자본 상의 남녀 차이가 자영업 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성주의적 입장을 반영한 구조적 모델(structural model)에서는 인적자본, 사회적 능력, 개인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비경제적 영역에서 여성이 갖는 지위로 인해 남성보다 낮은 자영창업 성과를 보인다고 본다. 특히 여성이 가족 안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면서, 남성과 달리 여성은 창업과 가사를 모두 수행해야 하므로 남성에 비해 자영창업의 성과가 낮게 나타난다고 했다. 젠더모델과 구조적 모델의 대안으로 제기된 직업모델(job model)에서는 사업특성이 여성과 남성의 개인적 특성 보다 자영창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성이 남성보다 저성장 영역의 업종에서 일하고 규모도 작고 사업지속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낮다는 것이다.

제, 마케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회적 편견이나 집안일 병행으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미 안주엽(2002)의 연구에서는 자영업 소득에 대한 결정 요인을 살펴 보기 위해 인적자본, 사업체 특성, 창업동기, 자영업에 대한 중장기 목표(향후 목표), 창업훈련 여부 등을 분석하였는데, 여성과 남성 모두 교육연한, 연령, 사업체 소재지 등이 자영업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 경험은 여성과 남성 모두 소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전문직 임금근로 경험이 소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자영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자영업 성과로 측정하여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자영업 소득과 연간매출액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홍성희(2005)는 자영업 성과를 자영업 소득과 자영업 만족도로 설정하고, 개인적 특성 및 가족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이전 자영업 경험, 자녀수), 경제적 특성, 자영업 특성(창업 자본금, 산업, 사업기간, 종업원 유무, 근무시간, 자영업에 대한 의사결정권 및 주도권 정도)을 분석하였다. 자영업 소득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높았고, 연령은 U자형 특성을 보였으며, 사업기간과 종업원 유무, 창업자본금이 정적 관계를 보였다. 자영업 만족도에 대해선 이전의 자영업 경험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이 길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성 자영창업의 성과 혹은 효과에 대한 영향요인은 빈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빈곤여성에 대한 자영창업 지원이 특별히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의 효과를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여성주의적 논의에서 제기된 여성 자영창업의 한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론

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 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영창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어 어느 정도 사업적으로 안정된 자영창업자를 분석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시적인 자영창업을 자활 또는 창업효과로 정의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영세 자영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을 고려할 때 자칫 과장된 창업효과를 보여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2차 자료분석의 한계로 인해 정확하게 자영창업 이전과 이후의 소득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변수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세 자영업이지만 비교적 사업운업을 안정적으로 하는 자영업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영학 및 마케팅 분야에서는 창업 후 2년~3년 동안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창업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4). 이러한 관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를 경제적 및 비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최소 2년 이상 자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여성 자영창업자들이 갖는 돌봄 등 가족내 역할에 대한 부담 등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특성 뿐만 아니라 가구특성 역시 분석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각 개인의 자료에 가구자료를 붙일 수 있는 Match merge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였다. Match merge 방법은 단순 merge 방법에 비해 가구자료를 각 개인의 자료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였다.³⁾

3) 한국노동패널은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merge 명령문을 활용하여 두 자료를 붙일 때,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첫째, 단독가구의 경우 하나의 가구자료와 하나의 개인자료로 구성되어진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단순 merge 명령문을 사용한다면 하나의 가구자료에 개인자료가 완벽하게 붙게 될 것이다. 둘째, 가구원수가 2명 이상일 경우, 하나의 가구자료에 2개 이상의 개인자료로 구성되어진다. 이때 두 자료를 일

또한 빈곤여성을 추출하기 위해 상대적 빈곤 개념인 중위소득 60%를 기준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절대적 기준(최저생계비)과 상대적 기준(중위소득 60%)을 적용하는데, 최저생계비를 사용하여 분석대상을 추출할 경우 저소득 자영창업자 사례수가 과소하게 혹은 제한적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해 수집된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원자료(2005)를 활용하였다. 먼저 8차년도와 6차년도 각각의 원자료에 대해 개인 및 가구자료를 Match merge 방법을 통해 붙이고, 상대적 빈곤 개념인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자영창업 경험이 최소 2년 이상인 사람을 선정하기 위하여 8차년도 및 6차년도 개인 ID를 비교한 후, 일치하는 ID를 갖는 463명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술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특히 단계적 회귀분석은 2가지로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자영창업 효과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엔 여성과 남성 각각으로 구분하여 자영창업 효과에 대한 영향요인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빈곤여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여성과 남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남성을 비교군으로 제시하여 빈곤여성에 대한 분석 결과의 의미를 성별을 고려한 보다 맥락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반적으로 활용되는 단순 merge 명령문을 사용한다면, 동일 가구원 자료 중 첫 번째에 위치한 개인자료에만 가구자료가 붙게 되고 나머지 가구원 자료는 미성(missing) 형태로 데이터 붙게 된다. 전자의 경우는 한 가구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의 경우처럼 한 가구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가 한 사례라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처럼 분석대상의 특성상 가구특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연구에서는 가구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그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merge 명령문이 아닌 match merge 명령문을 사용한다면, 한 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가구원 자료에 가구자료를 완벽하게 붙일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빈곤여성처럼 가구특성을 분석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에서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2. 변수의 측정

문헌고찰을 통해 자영창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자영창업 효과, 개인특성, 가족특성, 사업특성으로 구성하였고,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자료에서 관련 변수를 찾아 분석에 투입하였다. 그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첫째, 자영창업 효과는 경제적 효과와 비경제적 효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효과는 자영창업자가 사업경영을 통해 얻는 월평균 소득을 의미한다. 월평균 소득은 본 연구의 대상이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비경제적 효과는 개인발전 가능성,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임금 또는 보수만족도, 사업의 안정성으로 측정되었다. 개인발전 가능성은 창업을 통해 자영업자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창업 후 현재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임금 또는 보수만족도는 창업 후 얻는 소득수준에 대해 어떤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았고, 사업의 안정성은 자영업자가 창업 후 현재까지의 매출, 사업여건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이 4가지 요인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둘째, 개인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현재 건강상태, 자격증여부를 측정하였다. 이 중에서도 현재 건강상태는 분석대상이 원하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체적 문제로 인해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점에서 최대 5점을 갖는다. 다만 값이 클수록 현재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가족특성은 가구원수, 자녀수, 결혼상태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넷째, 사업특성은 자본금, 근무일수, 사업기간, 종업원수, 업종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1〉 분석 변수

구분		변수
자영창업 효과	경제적 효과	월소득액(만원)
	비경제적 효과	개인발전 가능성(1=매우 낮다, 5=매우 높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1=매우 낮다, 5=매우 높다) 임금 또는 보수만족도(1=매우 낮다, 5=매우 높다) 사업의 안정성(1=매우 낮다, 5=매우 높다)
개인 특성		성별(여성=1, 남성=0), 연령(세), 교육수준(년) 현재 건강상태(1=매우 좋음, 5=매우 좋지 않음) 자격증 여부(1=유, 0=무)
가족 특성		결혼상태(1=미혼, 2=기혼, 3=이혼, 4=사별, 5=별거) 가구원수, 자녀수
사업 특성 ⁴⁾		업종(음식업=1, 기타업종=0), 총자본금, 종업원수, 근무일수, 사업기간

IV.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1) 개인 특성

첫째, 성별에 따른 연령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은 40대가 42명(24.3%), 남성은 60대가 64명(22.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성 자영업자들의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이 41명(23.8%), 남성 역시 고등학교 졸업이 102명(35.2%)로 여성과 남성 모두 평균 학력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은 15.1%, 남성은 23.2%로 나타나 여성 자영업자가 남성 자영업자에 비해 고학력자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4) 일반적으로 자영창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에 본 연구에서 투입되지 않은 요인은 사업경험 변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의 한계로 인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경험 변수가 투입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바이다.

여성 자영창업자들이 남성 자영창업자에 비해 인적자본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건강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 중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32.4%, 남성은 23.8%로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하기도 한다.

〈표 2〉 개인 특성

구분		여성	남성	전체	χ^2 / t
연령	20대	11(6.4)	7(2.4)	18(3.9)	6.975**
	30대	28(16.2)	52(17.9)	80(17.3)	
	40대	42(24.3)	63(21.7)	105(22.7)	
	50대	29(16.8)	63(21.7)	92(19.9)	
	60대	40(23.1)	64(22.1)	104(22.5)	
	70대	23(13.3)	41(14.1)	64(13.8)	
	전체	173(100.0)	290(100.0)	463(100.0)	
	평균(S.D.)	51.7(14.55)	53.2(13.85)		1.103
교육수준	무학	26(15.1)	9(3.1)	35(7.6)	33.636**
	초등학교	52(30.2)	59(20.3)	111(24.0)	
	중학교	27(15.7)	53(18.3)	80(17.3)	
	고등학교	41(23.8)	102(35.2)	143(31.0)	
	전문대학교	9(5.2)	28(9.7)	37(8.0)	
	대학교	16(9.3)	37(12.8)	53(11.5)	
	대학원	1(6)	2(7)	3(6)	
	전체	172(100.0)	290(100.0)	462(100.0)	
현재 건강상태	매우 좋다	5(2.9)	6(2.1)	11(2.4)	9.827***
	좋다	56(32.4)	105(36.2)	161(34.8)	
	보통이다	56(32.4)	110(37.9)	166(35.9)	
	좋지 않다	47(27.2)	66(22.8)	113(24.4)	
	매우 좋지 않다	9(5.2)	3(1.0)	12(2.6)	
	전체	173(100.0)	290(100.0)	463(100.0)	
	평균(S.D.)	3.03(.95)	2.98(.91)		

* $p < .05$ ** $p < .01$ *** $p < .001$

2) 가족 특성

자영창업자의 가족 특성을 파악한 결과, 첫째, 결혼 상태를 보면, 여성은 81명(46.8%), 남성은 243명(83.8%)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 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여성은 해체가족 형태인 이혼·사별·별거 결혼상태를 갖는 사람의 비율이 45.6%로 11%인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배우자가 없는 많은 여성들이 배우자가 있는 남성에 비해 많은 창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가구원수에 살펴보면, 여성은 평균 약 2.1명, 남성은 약 2.6명으로 나타나 남성 자영창업자의 가구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수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은 약 2.0명, 남성은 1.9명으로 여성 자영창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족 특성과 개인 특성을 종합해 보면, 자영창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고연령·저학력이면서 자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없는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가족 특성

구분		여성	남성	전체	χ^2
결혼상태	미혼	13(7.5)	15(5.2)	28(6.0)	101.384***
	기혼	81(46.8)	243(83.8)	324(70.0)	
	별거	1(.6)	3(1.0)	4(.9)	
	이혼	16(9.2)	21(7.2)	37(8.0)	
	사별	62(35.8)	8(2.8)	70(15.1)	
	전체	173(100.0)	290(100.0)	463(100.0)	
구분		N	Mean	S. D.	t
가구원수	남성	290	2.6138	1.10166	4.990***
	여성	173	2.0809	1.12804	
고등학생 이하 자녀수	남성	290	1.8931	.34141	2.438*
	여성	173	1.9769	.35689	

* $p < .05$ ** $p < .01$ *** $p < .001$

3) 사업 특성

성별에 따라 사업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업종의 경우 음식업을 창업한 여성은 31명(17.9%), 남성은 14명(4.8%)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음식업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둘째, 사업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은 약 13년, 남성은 14년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세분화하여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11년 이상 운영한 경우와 2년 이내 운영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1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는 여성 60명(34.7%), 남성 119명(41.0%)이었고, 지난 2년 동안 사업을 운영한 경우는 여성 33.5%, 남성 26.1%였다. 셋째, 사업체의 종업원수는 여성 약 1.3명, 남성 약 1.6명으로 나타나 남성 자영창업자가 더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무일수는 여성 약 6일, 남성 약 6.7일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본금은 여성 약 6,400만원, 남성 약 1억 1천만원 정도로 약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⁶⁾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본 연구에서 숙박 및 음식업만을 따로 분리하여 다른 업종과 비교 설명한 것은 조사된 자영업자의 업종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분석결과를 그대로 제시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 바, 그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으면서 여성과 남성간에 업종선택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업종이 음식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을 밝힌다.

6) 본 연구의 대상이 상대적 빈곤층임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자본금의 비율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자본금의 출자비율 변수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자료에 포함된 자본금 출자 비율 변수에 결측값이 많은 관계로 사실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본 연구자가 예측하건데, 빈곤지위 결정은 가구주 및 가구원의 소득으로 결정하는 것에 비해 저소득층이 자영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수준은 가구소득과 관련 없이 —신청 시 요구되는 자격, 즉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을 고려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 지원기관(소상공인회의소,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아름다운재단, 일반은행 등)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창업지원금이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자본금 수준에 대한 이해의 폭은 비교적 넓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여성 및 남성 자영창업자의 자본금 표준편차에서 나타나는 이상값 현상이 데이터 수집 및 코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인지, 아니면 실제값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위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데이터를 훼손하지 않고 원 자본금 변수를 그대로 사용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표 4〉 사업 특성

구분		여성	남성	전체	χ^2/t
업종	도소매업, 운수업, 등	142(82.1)	276(95.2)	418(90.3)	21.165***
	음식업	31(17.9)	14(4.8)	45(9.7)	
	전체	173(100.0)	290(100.0)	463(100.0)	
사업기간	2년	58(33.5)	63(21.7)	121(26.1)	10.355*
	3-4년	21(12.1)	34(11.7)	55(11.9)	
	5-6년	12(6.9)	36(12.4)	48(10.4)	
	7-8년	10(5.8)	20(6.9)	30(6.5)	
	9-10년	12(6.9)	18(6.2)	30(6.5)	
	11년 이상	60(34.7)	119(41.0)	179(38.7)	
	전체	173(100.0)	290(100.0)	463(100.0)	
	평균(S.D.)	13.0(15.611)	14.84(15.95)		1.199
구분		N	Mean	S. D.	t
전체 종업원수	남성	289	1.56	1.89	1.677*
	여성	173	1.28	1.38	
근무일수	남성	290	6.6241	7.81446	.985
	여성	173	6.0347	1.14066	
자본금	남성	290	11272.3345	101272.02584	.557
	여성	173	6484.5260	75979.68354	

* $p < .05$ ** $p < .01$ *** $p < .001$

2. 자영창업의 효과 :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

먼저 자영창업자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년 소득액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성 자영창업자의 소득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여성 자영업자는 약 600~999만원대, 남성 자영업자는 1,600만원이상 소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 자영업자가 여성 자영업자보다 소득이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둘째, 비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영창업을 통한 개인발전 가능성, 생활만족도, 임금 및 보수에 대한 만족도,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임금 또는 보수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발전 가능

성의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임금 또는 보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59.5%, 70.7%로 현재의 소득수준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표 5〉 자영창업의 효과 :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

구분			여성	남성	전체	χ^2/t
경제적 효과	연소득 (만원)	300만원 미만	16(9.0)	22(7.6)	43(9.3)	18.849**
		300-599만원	39(21.9)	18(6.2)	37(8.0)	
		600-999만원	68(38.2)	31(10.7)	49(10.6)	
		1000-1299만원	29(16.3)	30(10.3)	43(9.3)	
		1300-1599만원	6(3.4)	46(15.9)	91(19.7)	
		1600만원 이상	20(11.2)	143(49.3)	200(43.2)	
		전체	178(100.0)	290(100.0)	463(100.0)	2.143*
		평균(S.D.)	3097.1(7010.01)	5064.1(12719.1)		
비경제적 성과	임금 또는 보수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1(6)	0(0)	1(2)	8.355**
		만족	12(6.9)	21(7.2)	33(7.1)	
		보통	57(32.9)	64(22.1)	121(26.1)	
		불만족	68(39.3)	129(44.5)	197(42.5)	
		매우불만족	35(20.2)	76(26.2)	111(24.0)	
		전체	173(100.0)	290(100.0)	463(100.0)	
		평균(S.D.)	3.86(.84)	3.19(.69)		
	생활 만족도	매우만족	0(0)	3(1.0)	3(6)	-
		만족	43(24.9)	78(26.9)	121(26.1)	
		보통	104(60.1)	165(56.9)	269(58.1)	
		불만족	24(13.9)	39(13.4)	63(13.6)	
		매우불만족	2(1.2)	5(1.7)	7(1.5)	
		전체	173(100.0)	290(100.0)	463(100.0)	
		평균(S.D.)	2.97(.63)	2.92(.65)		
	개인 발전 가능성	매우만족	3(1.7)	3(1.0)	6(1.3)	4.355*
		만족	27(15.6)	58(20.0)	85(18.4)	
		보통	97(56.1)	136(46.9)	233(50.3)	
		불만족	36(20.8)	79(27.2)	115(24.8)	
		매우불만족	10(5.8)	14(4.8)	24(5.2)	
		전체	173(100.0)	290(100.0)	463(100.0)	
		평균(S.D.)	3.25(.66)	3.19(.67)		

(계속)

구분			여성	남성	전체	χ^2/t
비경제적 성과	사업의 안정성	매우만족	1(.6)	2(.7)	3(.6)	2.601
		만족	40(23.1)	60(20.7)	100(21.6)	
		보통	80(46.2)	116(40.0)	196(42.3)	
		불만족	39(22.5)	92(31.7)	131(28.3)	
		매우불만족	13(7.5)	20(6.9)	33(7.1)	
		전체	173(100.0)	290(100.0)	463(100.0)	
		평균(S.D.)	3.08(.83)	3.19(.80)		

* $p < .05$ ** $p < .01$ *** $p < .001$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들의 소득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미미하나마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영창업 후 개인발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여성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56.1%로 가장 많았고 17.3%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남성들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서 여성과 남성 모두 자영업을 통한 개인발전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미하나마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만족도가 더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와 사업의 안정성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효과(평균 소득)와 비경제적 효과(개인발전 가능성)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기술 분석에서는 비경제적 성과와 관련해서 여러 변수를 분석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개인발전 가능성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자료에 포함된 변수 중에서 문헌고찰에서 살펴본 임파워먼트 효과에 근접하다고 판단되는 변수가 개인발전 가능성이었기 때문이다. 단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상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효과와 비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먼저 전체를 대상으로 성별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 및 비경제적 효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성별에 따라 영향요인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1)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순차적으로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모델 3), 성별(여성일수록),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구원수(-), 결혼상태(미혼에 비해 기혼일수록), 근무일수(+), 종업원수(+), 업종(음식업일수록), 창업 후 임금 또는 보수 만족도(+) 요인에 의해 소득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성별은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관련 변수를 모두 통제한 가운데에서도 자영창업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일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일원변량 분석을 통해 남성이 소득수준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연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단순한 통계적 숫자들의 조합에 의한 우연한 결과인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본 연구의 대상들이 지난 2년간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수준 현황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의 결과가 분석자료인 노동패널 8차년도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결과인지, 아니면 실제적 자영창업을 통해 경제적 효과가 성별 간에 차이가 있게 나타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영창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두 집단의 소득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여성 자영창업자는 2004년 3,677만원, 2005년 4,606만원, 2006년 3,09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 자영창업자

7)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은 지면의 한계로 인해 첨부하지 않았음.

는 2004년 13,188만원, 2005년 12,541만원, 2006년 5,0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원변량 분석결과를 고려해 볼 때, 여성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은 증감이 나타나긴 하나 비교적 일정 매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은 본 연구의 관찰 시점인 2004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자영창업이 일시적인 소득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정정도의 소득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실제로 Jiggins(1989)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자영업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남성 자영업자들에 비해 가구 소득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표 6〉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B	t	B	t	B	t
개 인 특 성	(Constant)	10.109	8.097	11.774	-2.474	11.673	9.262
	성별	.293	2.224*	.343	7.460*	.296	2.156*
	연령	-.032	5.860***	-.042	2.617**	-.042	7.618***
	교육수준	.052	2.901***	.047	2.805***	.041	2.326*
	현재건강상태	-.209	-2.901***	-.198	-.750***	-.191	-2.749***
	자격증여부	-.237	-.405	-.428	3.077***	-.434	-.774
가 족 특 성	가구원수			-.169	-.410	-.155	2.847***
	자녀수			-.068	4.487**	-.097	-.590
	미혼			-1.171	-.661	-1.130	4.392***
	이혼/별거/사별			-.101	-.101	-.157	-1.040
사 업 특 성	자본금					-1.29E-007	-.228
	근무일수					.014	1.663*
	사업기간					8.09E-006	.115
	종업원수					.014	3.883
	업종					.457	2.300*
F		31.283***		21.361***		16.691***	
R2		.277		.317		.341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수: 소득

8) 물론 경제적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일원변량분석만을 통해 절대적 변화가 곧 효과를 의미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표 7>. 그 결과, 여성의 경우 연령(-), 자격증여부(자격증이 있을수록), 결혼상태(기혼일수록), 근무일수(+), 종업원수(+) 요인이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역시 연령(-), 결혼상태(기혼일수록), 종업원수(+) 요인이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자격증여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은 그렇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자영창업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관련 자격증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성이 다른 업종보다 음식업 창업했을 경우 소득이 증가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분석

		여성 자영창업자		남성 자영창업자	
		B	t	B	t
개인 특성	(Constant)	16.810	6.469	8.926	6.713
	연령	-.042	-3.944***	-.042	-6.782***
	교육수준	.033	1.176	.061	2.770***
	현재건강상태	-.075	-.685	-.229	-2.639***
	자격증여부	4.167	3.724***	-.949	-1.558
가족 특성	가구원수	-.184	-1.902	-.095	-1.446
	자녀수	-.151	-.571	.024	.117
	미혼	-.949	-2.323*	-1.242	-3.766***
	이혼/별거/사별	-.005	-.022	-.125	-.594
사업 특성	자본금	2.30E-007	.212	-7.34E-008	-.117
	근무일수	.182	2.248*	.013	1.640
	사업기간	.45E-005	.255	2.86E-005	-.368
	종업원수	.472	5.154***	.013	3.831***
	업종	.599	2.396***	.326	1.046
F		7.289***		11.901***	
R2		.423		.404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수: 소득

2) 비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비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발전 가능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모델4), 건강상태(+), 가구원수(+), 결혼상태(미혼일수록), 결혼상태(이혼/사별/별거 일수록), 업종(음식업 일수록), 매출액(+) 요인이 창업 후 개인 발전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비경제적 효과에서는 모든 모델에서 성별이 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비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B	t	B	t	B	t	B	t
개인 특성	(Constant)	1.980	2.653	1.475	1.896	1.453	1.859	1.629	2.074
	성별	.025	.321	.017	.205	.013	.148	.022	.258
	연령	-.001	-.364	.003	.893	.003	.922	.002	.672
	교육수준	.001	.069	.005	.429	.006	.509	.007	.605
	현재건강상태	-.194	-4.305***	-.183	-4.085***	-.181	-4.009***	-.178	-3.957***
	자격증여부	.230	.661	.311	.906	.317	.919	.263	.763
가족 특성	가구원수			.115	3.444***	.118	3.496***	.114	3.387***
	자녀수			-.129	-1.250	-.137	-1.315	-.127	-1.222
	미혼			.400	2.480*	.410	2.525*	.385	2.367*
	이혼/별거/사별			.206	2.167*	.206	2.155*	.202	2.117*
사업 특성	자본금					2.41E-007	-.622	-2.44E-007	-.632
	근무일수					.001	.114	.001	.190
	사업기간					4.01E-005	-.829	3.93E-005	-.814
	종업원수					3.24E-005	.013	.001	.530
	업종					208	1.955*	207	1.955*
경제적 효과	매출액							6.27E-006	1.799*
F		4.344***		4.568***		3.226***		3.242***	
R2		.135		.165		.159		.164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수: 개인발전 가능성(1=매우 낮음, 5=매우 높음)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개인발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표 9>, 여성의 경우 현재 건강상태(-), 결혼상태(이혼/별거/사별일수록),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현재 건강상태(-), 결혼상태(미혼일수록), 가구원수(+), 자격증 여부(자격증이 있을수록) 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현재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을수록 개인발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중 결혼상태가 이혼/별거/사별인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보다 자영창업을 통한 개인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없는 해체가족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일반 정규 및 비정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 보다는 자영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할 경우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9〉 비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분석

		여성 자영창업자		남성 자영창업자	
		B	t	B	t
개인 특성	(Constant)	5.059	4.167	.083	.079
	연령	.000	-.021	.002	.549
	교육수준	-.007	-.470	.019	1.145
	현재건강상태	-.125	- 2.156*	-.222	-3.453***
	자격증여부	-1.114	-2.065	.852	1.773*
가족 특성	가구원수	.047	.978	.143	3.078***
	자녀수	-.116	-.820	-.119	-.795
	미혼	.138	.654	.546	2.304*
	이혼/별거/사별	.232	2.080*	.147	.909
사업 특성	자본금	-8.04E-007	-1.248	-6.38E-008	-.130
	근무일수	-.049	-1.123	.002	.310
	사업기간	-5.81E-006	-.073	-5.21E-005	-.847
	종업원수	.098	1.497	.002	.610
	업종	-.154	-1.170	-.277	-1.225
경제적 효과	매출액	-1.62E-005	-1.706	-7.23E-006	-1.725
F		1.959*		2.749**	
R2		.168		.173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수: 개인 발전 가능성(1=매우 낮음, 5=매우 높음)

V. 결론 및 시사점

자영창업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빈곤퇴치전략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고, 빈곤여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소득증대 뿐 아니라 독립성을 증진시킨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영창업의 소득향상 효과가 다른 전략들에 비해 월등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역량강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평가도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를 경제적 및 비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한 결과, 월평균 소득이 여성은 평균 258만원, 남성은 422만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영창업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자영창업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있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성별에 따라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자격증이 있을수록, 기혼일수록, 종업원수가 많을수록, 음식업을 선택했을 경우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격증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소득향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격증과 같이 창업과 직결되는 인적자본이 갖춰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자영업을 하려는 빈곤여성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그리고 창업 업종이 소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남성과 달리, 여성은 음식업종일 경우 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기존 성역할에 가까운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높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소위 여성들이 pink collar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성주의적 논의와 맥을 같이 하나, 이러한 업종들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미흡해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와는 다른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별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성과와는 달리 성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빈곤여성의 경우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을수록 창업을 통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면서 건강까지 좋지 않을 경우 일반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성별에 따른 결혼상태 차이가 창업 후 개인발전 가능성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이혼/별거/사별 한 여성 자영업자가 기혼자에 비해 자영창업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상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기대심리가 높은 반면, 남성 자영업자는 기혼자보다 미혼자일수록 자영창업을 통한 개인발전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 해체되어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어렵고 저학력 고연령으로 인해 정규노동시장 진입이 힘든 빈곤여성이 자영창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빈곤여성의 경우 자영창업을 통해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의지를 갖게 되는 비경제적 효과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여성의 소규모 자영창업에 대해 소득을 증대시키거나 가사와 근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업종의 제약성과 사업관련 자금·인맥 등의 부족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부정적 측면(Shelton, 2006)으로 엇갈렸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빈곤여성들이 자영창업을 통해 소득증대 효과를 얻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갖게 되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영창업이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빈곤여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탈빈곤에 기여하며, 소득향상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적 접근들이 함께 제공되어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의지와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의 자영창업효과에 있어서 사업 특성 보다 개인 특성이나 가족 특성이 보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Losocco(1991)에 따르면 이들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다뤄져야할 것이다. 또한 자영창업이 빈곤여성의 경제적으로나 비경제적으로 효과를 미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처럼 2-3년만을 관찰한 연구보다는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세영·유가효·홍성희(2005). 소규모 자영업의 성별 사회경제적 제약조건, 가족과 문화, 제17집 3호, pp.49-83.
- 김영옥 외(1998).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근로복지공단(2005). 제7차 실업자 창업지원사업 설문조사 결과분석.
- 문유경 외(2002). 여성 자영업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성지미(2002).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제25권 1호, pp.161-182.
- 성지미·한주엽(2003).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한국 노동패널연구, www.kli.re.kr.
- 원종욱 외(1999). 생업자금융자사업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2004). 21세기 성장산업에서의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홍성희(2005). 소규모 자영분야의 경제적 성과와 직업만족도.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vol. 23 No 3.
- 황정임, 송치선(2006). 자활공동체가 갖는 대안적 일자리로서의 가능성 탐색. 여성연구, 통권 제70호, pp.85-120.
- 황정임(2005). 빈곤여성의 자활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ldrich, H.(1989). "Networking among women entrepreneurs", in Hagen, O. Rivchum, C. and Sexton, D.(Eds). *Women-owned Businesses*, Praeger, New York.
- APEC(2002). Microbank Development,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The APEC Region, <http://www.apecsec.org.sg/download/pubs/EC2002.pdf>
- Carter, S. & Rosa, P.(1998). "The financing of male and female owned businesses". *E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Vol. 10, 3, pp.225~241.
- Clark, Peggy & Amy Kays(2002). *Microenterprise and the Poor*, The Aspen Institute

- Cloud, K. & B. H. Elavia(1991). "Socio-economic Impact of Credit on rural Indian Households: Agender Analysis". Unpublished paper.
- Ehlers, T. B. & K. Main(1998). "Women and the False promise of Microenterprise". *Gender & Society*, Vol. 12, 4, pp.424~440.
- Evans, D.J.(1996). "Technical Entrepreneurship, Strategy and Experience",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 14, No. 3, pp. 15-39.
- Grasmuck, S and Espinal, R. (2000). "Market Success or Female Autonomy? Income Ideology, and Empowerment among Microentrepreneurs in the Dominican republic". *Gender and Society*. Vol. 14, No. 2, pp.231~255.
- Goetz, Anne Marie & Rina Sen Gupta(1996). "Who Takes the Credit: Gender, Power, and Control Loan Use in Rural Credit Programs in Bangladesh". *World Development*, Vol. 24, No. 1, pp. 45~63.
- Hashemi, Syed M. & Ann P. Riley(1996). "Rural Credit Programs and Women's Employment in Bangladesh". *World Development*, Vol. 24, No. 4, pp.635~653.
- Hughes, Karen D.(2003). "Pushed or Pulled? Women's Entry into Self-Employment and Small Business Ownership".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Vol. 10, No. 4, pp.433~454.
- Izugbara, C, Otutubilkey(2004). "Gendered Micro-Lending schemes and Sustainable women's employment in Nigeria".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Vol. 39, No. 1. pp. 72~84.
- Jiggins, J.(1989). "How poor women earn income in sub-Saharan Africa and what works against them". *World Development*, Vol. 10. No. 7., pp. 953-963.
- Kabeer, N.(1997). *Reversed Realities: Gender Hierarchies in development Thought*, Verso, London.
- Kevane, Michael & Bruce Wydick(2001). "Microenterprise Lending to Female Entrepreneurs: Sacrificing Economic Growth for Poverty Alleviation?". *World Development*, Vol. 29, No. 7, pp.1225~1236.

- Leach, Fiona & Shashikala Sitaram(2002). "Microfinance and Women's employment: A lesson from India". *Development in Practice*, Vol. 12, No. 5, pp. 575~588.
- Longstreth, Molly, Kathryn Stafford, & Theresa Mauldin(1987). "Self Employment Women and their Families: Time use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No. 4, pp.408~416.
- Loscocco, Karyn A. & Joyce Robinson(1991). "Barriers to Women's Small-Business Success In the United States". *Gender & Society*, Vol. 5, 4, pp.511~532.
- Loscocco, Karyn A., Joyce Robinson, Richard H. Hall, & John K. Allen(1991). "Gender and Small Business Success: An Inquiry into Women's Relative Disadvantage". *Social Force*, Vol. 70(1), pp.65-85.
- Mayoux, Linda (1995). "From Vicious to Virtuous Circles?: Gender and Micro-Enterprise Development".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McKee, K.(1989). "Microlevel strategies for supporting livelihoods, employment, and income generation of poor women in the third world: the challenges of significance". *World Development*, Vol. 10. No. 7., pp. 993-1006.
- Okine, Vicky(1999). "The survival strategies of poor families in Ghana and the role of women therein". in *Women in Developing economies: Making Visible the Invisible*.
- Olm, K., Carsud, A. & Alvey, L.(1988). "The role of networks in new venture funding of female entrepreneurs: a continuing analysis" in Kirchoff, B., Long, W., McMullan, E., Vesper, K. & Wetzei, W.(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Babson College, Wellesley, MA.
- Paula Kantor(2001) "Promoting Women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 based on Good Practice Programmes: Some Experience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 Raheim, S. & Alter, C. F.(1995). *The Self-employment Demonstration final evaluation report: Part 1. Participant Survey*. Washington D.C.: Corporation for Enterprise Development.
- Rosa, P. and Hamilton, D.(1994). “Gender and ownership in UL small firm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8. No. 3., pp. 11-25.
- Sandberg, Karl W.(2003). “An Exploratory study of Women in Micro enterprise: gender-related differences”. *Journal of Small and Enterprise Development*, Vol. 10.
- Sanders, Cynthia K (2002). “The Impact of microenterprise assistance programs: A comparative study of program participants, non-participants, and other low-wage workers”, *The Social Service*, Vol. 76, pp.321~340.
- Shelton, Lois M. (2006). “Female Entrepreneurs, Work-Family Conflict, and Venture Performance: New Insight into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44, No. 2, pp.285~297.
- Schreiner, Mark (1999a). “Self-Employment, Microenterprise, and the Poorest”,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Univ. *Social Service Review*, 1999, Vol. 73, No.4, pp.496~523.
- _____(1999b). “Lessons for Microenterprise Programs from a Fresh Look at the Unemployment Insurance Self-Employment Demonstration”,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University, working paper.
- _____(2000). “The Material Conditions for the Microenterpris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Third World”.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University, working paper.
- _____(2004). “Employment options for Low-Income women:

- Microenterprise versus the Labor market”. *Social Work Research*, Vol. 28, No. 2, pp.83~92.
- Strattmann, Sheila & Margaret Sherraden(2001). “Welfare to Self-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irst Step Fund”,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Vol.9(3), pp.73~94.
- Todd, H.(1996). “Women at the center: Grameen Bank borrowers ten years on”. Malaysia : CASHPOR.
- Wakoko, Florence(2003). “Microfinance and Women’s Empowerment in Uganda: A Socioeconomic Approach”. The Ohio State University.
- Wright, Katie(2003). “Problems? What Problems? We Have None at All”. *Journal of Microfinance*, Vol.5, No.1, pp.115~13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s of Self-Employment of Women in Poverty : Focusing on Economical or non-economical Effects

Kyounghuy Kim *, Jungim Hwang**, Yunkyu Ryu***

This study analysed KILPS 8th wave data to explore the effects of Self-Employment of Women in Poverty, in terms of economical and non-economical effects. Research results demonstrated that major economical effects were ag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married(+), employee(+), restaurant business(+). Secondly, it is demonstrated that, in terms of non-economical effects, women in poverty who had health condition(-), divorce/ living separately/bereaved(+) had higher expectation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rough Start Business.

The evaluations of Self-Employment of women in Poverty vary. One evaluation is that Self-Employment is not only to be non-poverty through income increase, but also to raise independence. Another evaluation is that start business has no empowerment effect as well as no income increase effect. Based on the research analysis, this study could confirm that women in poverty could increase income and had the will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to be better through Self-Employment. In accordance, supports for poverty women should be not only economical supports like income increase strategy, but also social-psychological approach(support) that can make them have will and vision for better future. With those supports, Self-Employment can secure economic and non-economic effects.

Key Words : Woman Poverty, Self-Employment, Poverty Woman

* Soongsil Social Security Study Center

** Research Fellow, KWDI

*** Research Fellow, KWDI